

제10장 열대저기압의 이것저것

지은이 제임스 디 하워드
옮긴이 장 영 주

열대저기압을 다루지 않았던 이유

지금까지 열대저기압에 관한 테마는 어쩐지 피하게 되었는데, 그것에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 토픽은 지금까지만 해도 수많은 서적이나 잡지에서 다루어 왔기에 세일러들의 머리는 이미 지겨울 정도의 정보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열대저기압이 경이적인 현상임에 틀림이 없을지라도 일반적으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기상 현상 중에도 같을 만큼 중요한 것은 몇 가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열대저기압 이외의 기상 현상 쪽에 초점을 맞춘 일이 많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루어야 하는 것이 테마. 여기서는 열대저기압이라는 현상을 크게 설명한 위에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장소에 따라 대처 방법을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가 라는 것에 관하여 의론을 진행하 나가고자 한다.

“열대저기압”이라 부르는 이름

지금까지 나는 고의로 “태풍” 혹은 “허리케인”이라는 낱말을 피해 왔는데, 이것에도 사실은 이유가 있다. “열대저기압”이라는 낱말은 “태풍”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만큼 강한 임팩트도 없다. 잘 알다시피 한국에 몰려오는 세력이 강한 열대성 저기압은 태풍이라고 불리지만, 어느 태풍도 시작은 열

대저기압으로 생긴다. 열대저기압은 통상, 태풍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파괴력을 갖고, 가령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저위도의 열대저기압은 고위도의 대형 태풍보다도 위험한 경우도 많다. 물론, 절대로 회피해야 할 기상 현상이다.

이따금 들을 수 있는 사이클론이라는 낱말도 태풍이다. 허리케인과 꼭 같은 기상 현상을 가리킨다. 이들 낱말은 지리적으로 쓰임새가 다를 뿐이어서 아시아에서는 태풍(typhoon). 카리브 해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이클론(cyclone)으로 불린다.

열대성 저기압 중에도 중심부를 향하여 소용돌이쳐서 최대 풍속이 34 혹은 초속 17m(풍력 8, 영어로는 Fresh gale, 우리말로 큰바람이라고 불리는 풍력)에 이르는 것만이 트로피컬 사이클론이라 부르며 이 이하의 풍력인 것은 트로피컬 데프레이션(tropical deplation)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기상관측국은 태풍이나 허리케인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러한 이름은 트로피컬 데프레이션이 트로피컬 사이클론으로 발달한 시점에서 시작하여 붙여진다.

“열저(熱低)가 생기는 에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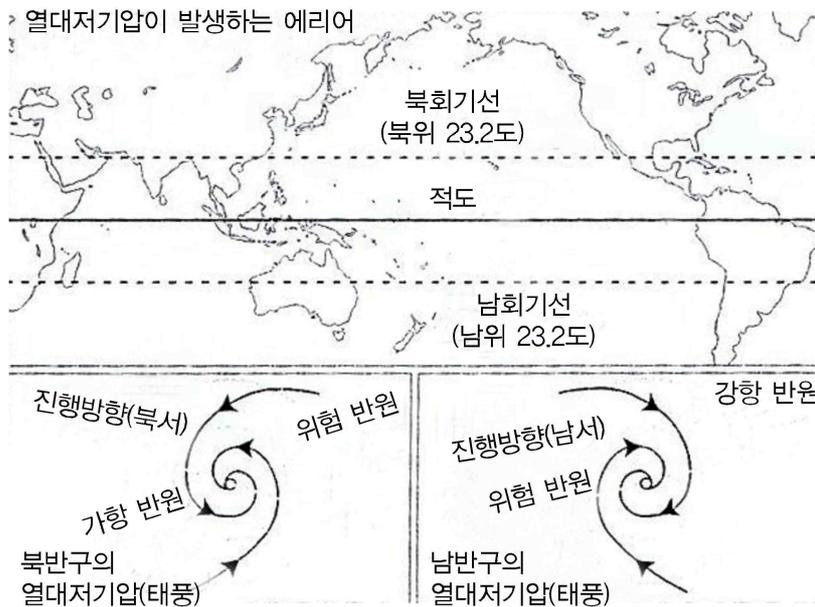
열대저기압의 시즌은 대략 남반구에서는 11월에서 4월까지, 북반구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다. 남북반구의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로, 시즌은 근년에 확대, 연장 경향에 있다. 나는 캄에서 2월에 대형의 태풍을 경험한 바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일례가 될지도 모른다.

보통은 있는 일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남북반구 어느 쪽이든 열대저기압이 발생, 그리고 통과하는 것은 특정의 해역에 한하지만, 이 에리어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으며,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열대저기압의 영향은 아직도 증명된 것이 아니며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러한 근년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발생 에리어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례로라면 북반구의 열대저기압은 여름철에 적도의 바로 북쪽에서 북회귀선(북위 23.2도)에 걸친 위도 범위와 태평양의 중앙부에서 아라비아 해에 걸친 경도 범위 안에 드는 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역 그리고 적도 이북의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을 따라 대서양 중부 부근에 걸친 서대서양 해역, 더욱이

북위 10도와 북회귀선의 사이에서 또한 중미서안에서 서경 약 150도에 걸친 경도 범위 안에 포함되는 동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다.

남반구에서는 역시 여름철에 적도의 바로 남쪽에서 남회귀선(범위 23.2도)에 걸친 위도 범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낀 서경 160도에서 아프리카 대륙 동안까지의 경도 범위 안의 해역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열대저기압은 반드시 일정한 진로를 가지 않지만, 발생 당초는, 북반구에서는 북서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덧붙여 두면 여기서 말하는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은 실제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난항에서 태풍을 피하는 경우의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지를 파악해 두는 일이다.

저기압 자체는 북서 혹은 남서로 나타가고 있어도 저기압에 따른 바람 자체는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소용돌이를 치면서 중심부를 향하여 분다. “가항반원(可航半圓)”과 같은 어휘는 틀림없이 이 그림에 그려진 저기압 중에서의 위치를 의미하고 있으며 남반구와 북반구에서는 그 배치가 다르다.

또 이러한 낱말은 상대적으로 들어맞는 것이며 “가항”이라는 낱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열대저기압에 말려들면 어디에 있는 강열한 광풍으로 변한다. 가항반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은 없다.

열대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공포, 상적(傷跡), 비극은 끊이지 않지만, 이론대로 행동하여 열대저기압의 발생, 통과 해역을 피하고 계절도 빠듯이가 아니라 여유를 갖고 벗어나게 되면 스스로 재난에 말려들 위험은 우선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는 태풍이라도 타고 넘을 수 있다거나 혹은 도망칠 수 있다는 따위의 바보스런 발상은 하지 않도록. 요트의 속도로 미루어 볼 때, 일단 붙들리면 대처는 불가능이라는 것밖에 없다. 태풍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태풍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